

다리의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

동양의학코너엔 우리무당 소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을 방문해 본다면 파리가 예술과 패션만의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낄 것이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시중의 하나이다. 샹제리제 거리, 콩코르드 광장,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관광지이므로 이들 주변에는 일년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에 비하여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은 관광 책자에서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 방문할 기회를 놓치기가 쉽다. 그러나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은 규모나 시설만이 아니라 전시물의 내용이나 종류면에서 세계의 어느 과학 전시관에 비해 손색이 없기 때문에 파리에 간다면 꼭 방문해 보도록 추천하고 싶다.

81년 미테랑 대통령때 건축

라 빌레트는 파리의 외각에 위치하므로 지하철을 타는 것이 편리하다. 지하철역에 내리면 라 빌레트의 과학산업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공원에 체조경기장, 역도경기장 등 여러 경기장이 있는 것처럼 라 빌레트라고 불리는 큰 공원 안에 과학산업관(Cité

des Science et de l' Industrie), 거대한 스크린을 자랑하는 극장 제오드(Géode), 대형 콘서트 극장 제니뜨(Zénith), 음악관(La Cité de la Musique) 등이 있다. 라 빌레트 공원을 둘러보면 과학과 예술 그리고 기술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과학산업관 건물은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건축가 아드리앵 팽실베에게 설계를 맡겼으며, 아드리앵 팽실베는 빛과 식물과 물이 상호작용 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과학산업관 건물은 금속과 유리로 벽면을 처리하여 현대적 외양을 띠고 있으며 내부에 들어가 위를 쳐다보면 두개의 거대한 원형 창문으로 실내 깊숙이 까지 햇빛이 비치고 실내 장식은 푸른빛을 위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미래 감각적인 과학관의 느낌을 받게끔 한다.

건물 안에는 과학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탐험관, 현대 기술을 체험하면서 과학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노관, 어린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과학놀이와 실험장치들이 있는 어린이관, 직업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직업관, 3차원 영

화를 볼 수 있는 뤼미에르 영화관, 과학영화를 상영하는 천문관이 있어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상적인 과학과 기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극장 제오드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친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번쩍거리는 외양으로 사람들의 눈을 끈다. 이곳에서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거나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하는 등 보통 영화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영화들을 상영하며, 특이한 외양만큼 상영되는 영화들도 매우 인상적인 것들이다.

여러 전시관 중 특히 탐험관은 천문학, 해양학, 환경, 물리학, 수학, 지질학, 생물학, 의학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항공학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전 분야에 걸쳐 실물과 모형을 전시해 놓았으며 방문객들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컴퓨터와 음성을 통하여 우주와 지구, 컴퓨터 게임 등에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탐험관 안에 있는 전시관 중 환경관, 생명공학관, 의학관 등은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 생명공학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고 그 옆에는 관련 전시물들을 잘 진열해 두고 있었다. 생명공학관의 중앙에는 유

파리 교외의 공원에 위치한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은
1981년 미테랑대통령이 건축가 아드리앵 팽실베에게 설계를 맡겨
지은 건물로 금속과 유리로 벽면을 처리한 초현대시설을 갖춘 과학관이다.
이 과학관은 탐험관, 어린이관, 테크노관, 직업관, 영화관, 천문관 등이
있으며 동양의 전통적 의술이 소개되고 있는 코너에는
우리나라의 무당과 굿하는 모습도 소개되고 있다.

전자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낸 수백개의 나뭇잎들을 낀 원통 유리관 속에 넣어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았는데,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였다. 2층에 있는 의학관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컴퓨터가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어 컴퓨터상으로 의사나 환자의 입장이 되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건강에 관련된 간단한 상식을 알 수 있게 하는 코너가 있다. 마네킹의 몸통에 청진기를 대고 마네킹이 숨쉬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시설도 있으며, 서양의 의학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통적인 의술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던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관련 전시물을 진열해 놓고 있다.

동양의 전통적인 의술이 소개되어 있는 코너에는 우리나라의 무당과 굿하는 모습도 소개되어 있었다. 천문관도 볼만한 전시관 중의 하나다. 이 곳은 돔 형태의 영화관으로 별자리 여행과 행성의 신비를 주제로 하는 30분 짜리 과학영화를 상영한다. 돔 형태의 스크린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며, 움직이는 의

자에 앉아서 특수 음향효과를 들으며 영화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우주의 끝까지 실제로 여행을 갔다 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천문관 앞에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개발한 우주선 모형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끔 하고 있다.

어린이관은 연령별 분리 관람

1층에 있는 어린이관은 취학 전의 어린이들이 안전모를 쓰고 다양한 과학놀이와 실험을 하는 곳으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과학관이다. 부모나 선생님들과 함께 관찰과 놀이, 그리고 전시물을 만져보고, 기계를 조작하며,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 이 곳은 연령에 따라 3~5세를 위한 전시관과 5~12세를 위한 전시관이 있으며, 전기관도 있다.

3~5세용 전시관에는 굴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다람쥐와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 볼 수 있게 만든 거북이의 등껍질, 엔진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직접 운전해볼 수 있는 어린이용 자동차 등이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게 전시되어 있다. 5~12세용 전시관에는 게임집에

서 여왕개미와 일개미들이 사는 모습을 관찰하는 코너, 아이들이 TV프로그램을 만드는 스텝이 되어 자신만의 TV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코너, 통신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코너, 열대의 나비들이 살고 있는 온실, 직접 로봇을 조정해 볼 수 있는 곳,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는 코너 등이 있다. 아이들은 신기하고도 흥미거리로 가득 찬 어린이관을 여행하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에는 이런 전시관 외에도 장난감이나 선물을 살 수 있는 상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 테리아,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책과 비디오 테이프, CD, 엽서, 포스터 등을 파는 서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딱딱하고 지루한 전시위주의 과학관과는 달랐다. 교육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즐거움, 휴식과 과학기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특히 최근의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하게 하는 점이 라 빌레트 과학산업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㉞

崔京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